

광주 신세계 백화점 신축 사업 급물살 탄다

법적 범위 내에서 광주시 조건부 9가지 요구사항 '대부분 수용' 밝혀 금호월드 차도 '양방 통행' 여부는 교통영향평가 통해 최적안 마련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신축과 관련한 추가 이행 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특히 광주신세계측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조건부 조치에 대해 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신축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신축 이전과 관련한 9가지 조치 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지난 3월 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당시 요구한 기존 백화점 활용방안, 전가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추가확보, 사업 대상지 남서측 진입부 조정, 공공 보행환경 개선, 지하차도 기부채납, 기존 육교 철거 검토, 응급·화재 등 비상 차량 동선을 고려한 도로 확장,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 등에 대한 공식 이행 계획서로, 광주신세계측은 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주변 교통여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신세계측은 가장 먼저 현 백화점 확장 이전 시 기존 백화점 활용 방안에 대해 판매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공공성이 높은 콘텐츠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카데미, 스터디카페, 지역특화 공간 등 문화 청소년 관련 시설과 탁아소·보육시설 등 지역민을 위한 시설을 도입하며 2026~2027년에 세부적인 콘텐츠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가차 충전시설은 애초 주차 면수(2370대) 중 116대에서 127대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지 남서측 진입부를 진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조정안에 대해서도 자문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는 또 사업부지 주변 응급 화재 등 비상차량 동선을 고려한 도로확장과 전가공간 등 확보, 선형변경에 따른 보행 단절 해소를 위한 일체적 공공 보행도로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자문위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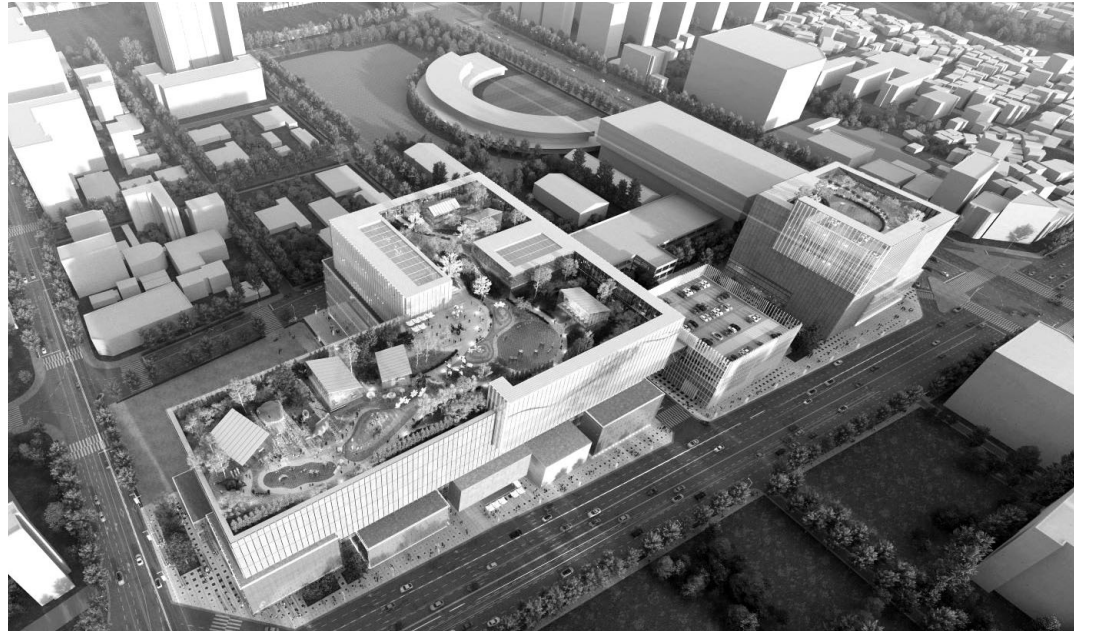
사업 대상지 동측 죽봉대로 내 보행육교 철거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북-남'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개통하기로 계획한 만큼 철거는 당연한 것이며, 철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위치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시구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자문위에서 요구한 금호월드를 포함한 주변 민원 적극 해소에 대해서도 금호월드와 신축 백화점 사이 연결 다리를 놓는 민원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금호월드측에 전달했으며, 다양한 상생 방안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광주신세계측은 설명했다.

광주신세계는 다만 '금호월드 방향 차도를 일방 통행에서 양방통행 (3차로 이상)으로 검토하라'는 자문위 안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신축백화점과 금호월드간 진출입 흐름 등을 고려한 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신세계의 추가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지구 단위 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입안이 확정되면 주민공람과 광주시 주관부서 의견 검토,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며, 이후 고시를 거쳐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규모 점포 허가·등록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광주신세계가 현 백화점과 인근 이마트 부지 등을 합쳐 신축을 추진중인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조감도.

한편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 총 9000여억 원 을 투입해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평군수, 광주 군 공항 이전 첫 찬성 입장 표명 '새 국면'

함평 발전 대전환 전기 마련 기대 강 시장 "군·민간 통합 이전 바람직"

정부 지원을 명시한 군공항 특별법 제정에 이어 함평군이 처음으로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8일 담화문을 내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함평 발전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함평은 지난해 출생자 수가 75명에 불과해 향후 5년 이내 출생자가 0명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군수로서 지역소멸의 위기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거친 후, 주민투표에 따라 이전이 결정되며 공사 기간만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는 광주와 통합에 대해서는 "절차상 전남도와 국회 등의 승인이 필요해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식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함평군수가 처음으로, 유치 의향서 공식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오는 7~8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도 이날 함평군수의 담화문 발표 직후 곧

바로 광주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전 관심 지역에서는 이전 지원 사업, 지역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 지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함평군의 의지가 담긴 담화문 발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이날 오전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분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전남도 등과 여러 논의를 해야겠지만,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서 논의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사실상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힘을 실었다. 강 시장은 "광주공항은 군 공항에 민간 공항이 얹혀 있는, 이른바 임대로 운영되는 형태"라면서 "민간과 군 공항을 분리하는 순간 논의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무안으로 옮겨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요구와는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시·도지사 만남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합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코로나 위기 하향 논의 시작 심각서 경계로...이번주 결정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맞춰 정부가 8일 위기 단계 하향 논의의 시작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와 안정적 대응 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비상 체계를 유지했고,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방역 종사자의 헌신적 희생으로 3년여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했다"며 "이제 그간의 경계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감염병에 관심을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위험군과 감염취약 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프면 쉬고 어디서나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국민 지원체제도 계속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남 쌀 재배면적 5619ha 감축한다

쌀 수급 안정 위해 콩·밀 등으로 전환...목표대비 116% 접수

전남도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5619ha 줄여 14만8000ha로 관리할 방침이다. 식량화물 생산을 늘리고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현재 목표(5619ha)의 116%인 6518ha가 접수됐다.

전남도는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전략작물지불제'와 함께 자체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지원 등에 따라 벼 대신 밀, 콩, 조식료 등으로 전환하는 농사들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논 타작물 전환 재배 품목별 현황은 콩 1660ha,

가루쌀 788ha, 조식료 2505ha, 듀류 등 1565ha 등이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쌀 생산 면적인 72만7000ha 중 3만7000ha의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전남도는 2023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도·시군·농협·농업인단체 등과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사업설명회와 대규모 농가 대면 홍보, 논콩 재배기술 현장교육 등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 필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또 전남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37억

원을 투입해 논에 벼 대신 듀류,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200만원의 지원하고 올해부터 전략 작물인 콩 재배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의 기계·장비를 경영체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벼 재배 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2023년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콩 150포/ha·일방작물 300포/ha)하고, 농협에는 수확기 벼 매입자금을 무이자 지원(1500억원 한도)한다.

전남도는 신청 기간 내 타작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전략작물지불제' 하계작물은 10월까지, 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31일까지 연장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발생암 매각공고

1. **입찰건명·발생토석 매각**
호남고속도로2단계 5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약 174,481m³(자연상태 모암 기준)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중,강)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총화양	연보통암	경암	합계	비고
수량	m ³	-	174,481	174,481	-	174,481	적입구, 자연한기구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장소: 호남고속도로2단계 5공구 현장사무소)
가. 현 장 설명 회: 2023년 05월 15일 14:00
나. 입찰등록마감일: 2023년 05월 16일 14:00
다. 개찰일시: 2023년 05월 16일 14:00
라. 낙찰자선정: 2023년 05월 18일(낙찰자 개별통보)

3. **입찰방법: 일괄 매각 입찰**
가. 낙찰자 결정: 1㎡당 원석대가 최고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고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계약대리인의 운반거리 산정 방법에 의함)
*실제운반거리(L=2.9m)를 초과하는 추가운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추가운반비용에 대한 단가는 건설중사 표시사단장으로 선정함.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련서류가 있을 시 자율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5. **계약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6. **입찰 참가 자격**
가. 암매각의 경우
1) 입찰공고일 현재 공채취급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산골채취취업 또는 골재채취취업에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사업자로, 현실일 현재 개발행위 준공허가증 특한 반입장승 구비해 실시방법(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함.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서 제출하여야 함.
(의정장 및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 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함.)
나. 공동사업
1)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명이 체당인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 시 국제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업설명서 및 골재 생산시설은 발파법 위반, 골재생성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7.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반입장(골재생산시설 및 야적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산출 파쇄업 사업자 등록증 및 골재 파쇄 신고수리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자인감증 1부
라. 시국제 환납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원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현장접수인 가능)
· 매 각 자 : 국가절감단 홍보본부
· 계약대리인 : ㈜태연건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358)
· 타 문 의 : 시공사 (㈜태양건설 061-454-5557)
 감리단 (㈜케이알티씨 061-454-5509)

2023년 5월 9일
호남고속도로2단계(교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
계약 대리인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찰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그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령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지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점 땅 4,650㎡ (1,406평)

- 공사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사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력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3년 4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300,000,000원을 금 265,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60,000주 중 보통주식 9,000주 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 당 110,186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3.5.9.
삼일에스테이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로105 (안양동)
공동대표이사 원충국
공동대표이사 천경수

분할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익채출공고)
주식회사 인디브리움은 2023년 4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건설 및 부동산 사업부문을 인계분할하여 주식회사 브리움인개발(가칭)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인디브리움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본 분할절차가 있어 양 회사는 상회 제53조의9 제2항에 의거하여 연대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인디브리움은 신생회사의 자본금이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본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들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같은기간 내에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주식회사 인디브리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안로29번길 14-1 (송정동)
대표이사 정경민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